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2011년 6월 7일(화) 소식지 제3호

등대

발행처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전화 | (062)383-9061~2

팩스 | (062)383-9063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5 낙헌빌딩 1층

정보 재미 감동... '공감아카데미' 큰 인기

소통·통합으로 호남비전 공감대 형성 수준높은 지식제공, 사고의 지평 확대

(사)호남미래연대가 '책임사회 실천'을 기치로 운영중인 공감아카데미가 정보와 재미, 감동이 넘치는 '공감의 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감아카데미는 자기계발과 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수준높은 지식을 제공, 지역민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시민강좌다.

호남미래연대 주최, KBC광주방송·광주매일신문 후원, KT에서 협찬한 공감아카데미는 4월30일부터 2주단위로 1박2일 일정으로 운영돼 1~3기 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매 기수마다 공개모집 및 추천으로 50여명이 참석한 강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유익한 정보는 물론 재미, 감동, 우정을 선사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3기 강좌는 자기공감, 세계공감, 사회공감, 지역공감, 우정공감, 시대공

감 등 6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으로 소통하라), 문무홍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개성공단 현황과 발전방향), 박진영 스피치문화연구소 대표(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말하기), 조상열 대동문화 대표(남도의 역사와 문화), 박재원 비상교육연구소장(스웨덴 교실혁명),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나와 문화예술), 신필균 사회투자재단이사장(복지혁명 스웨덴), 윤장현 아시아인권 이사(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글로벌시대의 대한민국), 황풍년 전라도닷컴 발행인(항구네 오래오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수강생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업체 대표, 직장인, 지역업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으며 연령층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특히 강사진에 따라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맞춤형 수강생이 늘어나 복지



분야 권위자인 신필균씨가 강사로 나선 3기 강좌에는 송원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비롯 노인, 장애인분야 사회복지상담분야 전문가들이 단체로 수강하는 열기를 보였다.

수강생들은 또 우정공감 시간에 조별 분임 토론, 게임,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소통과 우정을 나누면서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정용화 이사장은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발전, 지역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서 수준 높은

강의가 펼쳐지고, 수강생들도 배움에 대한 큰 열의를 보여줬다"면서 "공감아카데미가 정보와 감동, 소통과 통합의 평생학습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각 분야 명사 초청 특강형식으로 이뤄지는 공감아카데미는 6월 10일부터 격주 단위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의 4~6기 강좌를 이어간다.

<관련기사 2·3면>

올림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광주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까...

광주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특성이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티브잡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고, 대학도 학비가 없어 중퇴했으며, 그가 창업한 애플사에서 한 때 추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IT산업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창조적으로 재결합해, 혁명적인 효용가치를 만들어냈다. 애플컴퓨터와 MP3플레이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가 바로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의 산물이다.

미래로 세계로 열린 도시 광주

21세기는 융복합의 시대다. 산업화 정보화의 성과를 융복합해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시대다. 사람도 서로 섞이고 교류하면서 성숙해지고, 문화도 서로 섞이고 교류하면서 풍성해진다.

융복합의 전제는 개방성이다. 열린 마음이다. 닫힌 사고로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태될 수밖에 없다. 광주는 열린 도시여야 한다. 세계로 열리고, 미래로 열린 도시여야 한다. 지역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열린 도시여야 한다.

'문화도시 광주'는 문화의 다양성을 창조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매개로 하여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개방성과 창조성의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도시,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고, 경계를 넘어서고, 모든 생각과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도시 광주가 돼야 한다. 수많은 스티브잡스가 탄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한다. 이런 환경일 때 광주는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광주민주항쟁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으로 전환시키는 광주시민의 열린 세계화의식은 이미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광주의 예술전통과 민주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이미 융복합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 첫째의 주제가 '경계를 넘어'였으며, 50개국 92명의 예술가들이 이념, 국가, 종교, 인종의 경계를 넘는 소통의 가치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계를 넘는 소통의 가치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문화환경에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물론이고, 친환경녹색에너지산업, 미래형 광융합산업, 문화디지털산업, 복합문화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열린 광주정신은 대한민국을 아우르고, 아시아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낀 1박2일”



전 세 중_전연본인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가 마련한 1박2일(5월28일~29일) 일정의 '제3기 공감(共感)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맑은 숲에 둘러싸인 중소기업호남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우리 사회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되돌아보게 했다. 강사님들의 해안은 우리 사회가 당연한 현실과 과제를 냉철히 진단해 주셨고,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되새겨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선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첫날 아침 김영식(남부대 교수) 강사의 '자기공감 : 웃음으로 소통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은 웃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공감하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다.

오후에는 강의 일정이 좀 빠삭하게(?) 돌아갔다.

세 분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그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체득한 진수(眞髓)를 전하는 만큼 그것을 다 소화하

기에는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친근하고도 자상하게 발효 숙성된 강연이어선 지 공감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국내 복지복야 권위자인 신필균(복지국가건설시민정치포럼 대표) 여사는 '세계공감 : 복지국가 스웨덴과 사회통합' 강의를 통해 일찍이 '보편적 복지체계'를 도입한 스웨덴 복지정책을 조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주 시민사회운동의 원로인 윤장현 아이안과 대표원장 '사회공감 :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건강한 민주주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는 '지역공감 : 남도의 역사와 문화' 강연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렵듯이 알고 있던 빼어난 지역 문화유산의 풍부한 식견과 유머러스한 해석으로 날날이 풀어냄으로써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안겨줬다.

저녁식사 뒤에는 전문MC인 문제하('문제야' 가 아님)씨가 진행하는 '우정공감' 시간이 이어졌다. 5개조로 나뉜 참석자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지키기 위한 실천방식 등을 간추리기도 했다.

마지막 '연대마당'에서는 폭소가 끊이지 않는 각종 게임과 참석자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모든 시름을 떨치고 마음껏 즐기는 유쾌하고 행복한 밤을 이뤘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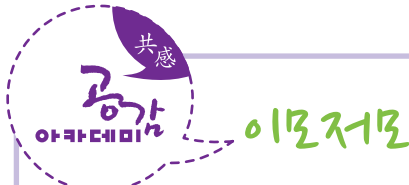
앞선 1~2기 회장단이 합류해 우정의 마당을 함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아침식사 후 '시대공감 :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용화 이사장의 특강은 이번 연수의 화룡점정이었다. 그가 털어놓은 진솔한 소회와 에피소드들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른 없던 고향땅 광주로 발길을 옮긴 까닭, 양동시장의 상인으로 부터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서도 끝내 애정 어린 꺾속말을 들었던 일화, 5·18단체의 한 어머니와 새로운 모자(母子)로 태어난 사연, 새날학교(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학력인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게 한 과정, 충청도 땅에서 뿔곰다시피 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광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할란 받은 사연 등...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듯 뿌듯한 마음으로 가득 차다. 공감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공감-세계공감-사회공감-지역공감-우정공감-시대공감'으로 엮은 연수 프로그램은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불씨처럼 여겨졌다.

소통과 통합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대전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 소통과 통합은 '공감'이라는 바구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호남미래연대'의 '공감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되돌아보건대 행복하고도 뜻 깊은 1박2일이었다.



회장단 구성 연대감 확산

0... 참가자들은 모든 강의가 끝난 뒤 기수별 회장단을 구성해 공감아카데미에서 맺은 우정과 공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모습을 연출.

회장단은 1박2일동안 함께 한 동료들의 추천으로 회장 1명, 부회장 5명이 선출되는 데 2기 회장단 선출때는 회장 후보가 복수로 추천돼 후보는 물론 추천자까지 나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선거 열기가 후끈.

선출된 회장단은 새로운 강좌가 진행될 때 다과와 음료를 들고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하는 끈끈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가 하면, 동기생들과 함께 5·18행사기간 호남미래연대가 마련한 주먹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아카데미에서 체득한 공감과 연대를 실천.

웃음꽃 만발 에어로빅 체조

0... 에어로빅 체조시간은 수강생들이 만들어내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울동이 끊이지 않아 웃음 꽃이 만발. 매 강좌 둘째날 아침 식사 전에 진행된 에어로빅 체조는 난이도 낮은 동작을 배우는 데도 평소 접해보지 않은 운동인 관계로 참가자 대부분 엇박자 울동을 선보여 서로에게 웃음을 전달.

남다른 리듬감과 울동을 자랑한 일부 참가자는 강사로부터 "예사롭지 않은 몸 놀림이다. 분명 왕년에 춤 놀았을 것"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http://cafe.daum.net/gonggamac>

강좌를 수료한 참가자들은 다음 카페에 개설된 공감아카데미 카페를 통해 다양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시길 기대합니다. (카페 운영진)

"1박2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좋은 분들을 모시고 공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용화 이사장님과 모든 시간을 같이한 스태프님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인사 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교육 강의시간, 한분 한분의 환한 미소 그리고 열정 건강하세요 2기 회장님 화이팅 ㅋㅋ 맛있는건 언제 사주실? ㅎㅎㅎㅎㅎㅎ / 정재식

신필균 이사장님의 '세계적인 복지국가스웨덴'에 대한 명강의 중 심금을 울렸던 한 대목,

"한국에서도 우리 공감아카데미같은 시민 민간단체가 역할 분담 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실로 공감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강의까지 빼먹으며 교수님한테 송구스런 양해구하고 참여했지만 여간 뿌듯합니다. / 점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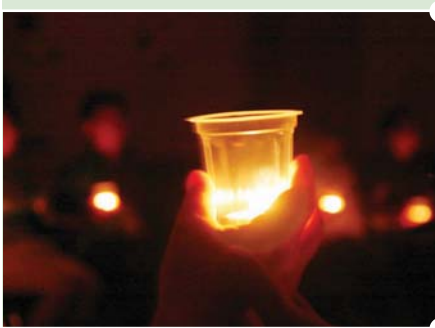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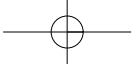
너무 좋아 집사람을 2기로 신청했더니, 수준이 많이높아졌나나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늘~~~ 시냇물 흐르듯이 좋은 일만 있으시길~~~ / 늘 시냇물처럼

"난...그날 우리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아카데미 1기과정 수료생 자축하며,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나무그늘

1기를 수료한 3조 이정호입니다. 정말 유익한 우리 모두의 공감시간이었습니다 첫 기 수료생의 열심 공감을 위해 화팅 / 영사35



공감아카데미 2기 수료생들이 단체 촬영 도중 '공감'을 외치고 있다.



▲ 자신을 성찰하는 촛불 의식

▼ 임하프단 개강축하공연

함께 '공감'해요! '1박2일'

공감아카데미는 정보와 재미, 감동을 선사해 고품격 아카데미로 자리잡고 있다. 수준높은 강의, 수강생들의 진지한 자세가 어우러져 강의장은 항상 열기가 넘쳤다. 공감아카데미 1~3기 주요장면을 사진으로 엮는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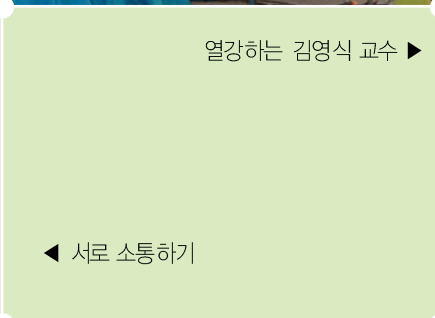


▲ 임종식 중소기업청 차장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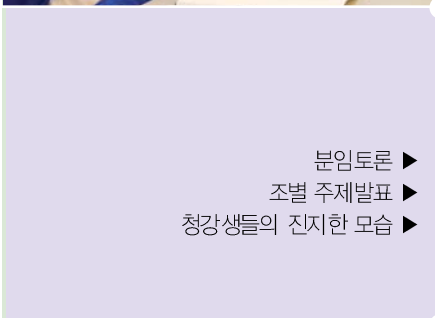
▼ 에어로빅 체조 시간



열강하는 김영식 교수 ▶



◀ 서로 소통하기



분임토론 ▶
조별 주제발표 ▶
청강생들의 진지한 모습 ▶





'공감'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공감, 사회공감, 세계공감, 우정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소통과 통합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대상 _ 광주시민 및 대학생

일정 _ 4기: 6월 10일~11일 / 5기: 6월 17일~18일 / 6기: 7월 1일~2일

시간 _ 1박2일(금요일 17:30~토요일 17:10)

장소 _ 화순금호리조트(영주체육관 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이동)

참가비용 _ 1인 10만원

문의 _ (사)호남미래연대 전화 062)383-9061~2 / 팩스062)383-9063
*참가신청시 수강희망 '기수'를 선택해 주세요.

온라인신청 _ 다음카페에서 '공감아카데미'를 치세요

***공감아카데미 강사진 및 주제**

공감 4기

- 김영식 남부대 교수 -웃음으로 소통(笑通)하라
-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 -행복의 섬 소록도
- 알렉산더 레프킨 고려대교수 (러시아인) -외국인이 본 한국인, 한국사회
-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글로벌코리아 대한민국의 과제

공감 5기


-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경영혁명과 기업의 진화
- 공훈의 소설뉴스 위키트리 대표 -SNS혁명과 홍보패러다임 대변화
- 이기식 박사 -웃음으로 소통(笑通)하라
-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글로벌코리아 대한민국의 과제

공감 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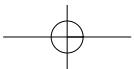
-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글로벌코리아 대한민국의 과제
-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소셜네트워크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 유인택 영화제작자 -화려한 휴가와 광주의 문화예술
- 고승덕 국회의원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주최  호남미래연대

주관  공감아카데미

후원  KBC 광주방송  광주매일신문

협찬  alleh



광주새날학교 정규학력 위탁교육기관 지정

학생들 능력·적성 맞춰 자신감 갖고 미래 설계 가능 호남미래연대 - 정용화 이사장 적극 노력 '밑거름'

광주 새날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날학교는 국제결혼으로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문화 적응과 초중고 교육과정을 가르키는 미인가 학력시설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중도입국자녀 등이 일정한 적응교육을 받은 후, 원적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날학교를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위탁 대상 학생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북한 탈출 청소년, 학교적응이 불가능한 국제결혼자녀 등이며,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적학교에 적을 두고 새날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이로써 새날학교는 공교육 과정 포함으로 예산 가능해 안정적인 운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정규학력 인정으로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게 됐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및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2007년 개교한 새날학교는 개교이후 학력미인가 시설로 인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독지가들의 성금 및 후원금이 답지되곤 했지만 학생 증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교 위기까지 봉착했었다.

아울러 재학생들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 배우고 싶어도 더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돼 국제결혼의 최대 피해자 신세였다.

하지만 정식학력기관 지정으로 새날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날학교의 정식학력기관 지정은 (사)호남미래연대와 정용화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호남미래연대는 지난해 9월 창립을 전후해 새날학교 지원활동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삼고 후원금 모금, 후원



단체 및 기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새날학교 명예이사장에 추대된 뒤 광주시교육청과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정치권,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을 찾아다니며 학력인정기관 지정을 호소했다.

또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기업과 사회단체, 개인을 상대로 후원 활동에 나서 기숙시설 아파트 2채와 교육용 컴퓨터, 통학차량, 운영자금 등을 마련해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올 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가수 씨엔블루 멤버들을 광주로 초청해 학생들의 꿈과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학력 미인정 학교 재학생으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회계연도 중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광주시교육청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새날학교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자 학생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동안 학력인정을 받지 못해 미래가 불안했으나 이제는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정용화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새날학교 학생들이 호남미래연대에 보내온 감사의 편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너무 기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학교에 다니고 있는 범재은 이라고 해요. 정용화 이사장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 학교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인가가 났다고 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새날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옛날에 일반 학교에 다녔지만 학교 친구들에게 필리핀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어요.

저는요. 일반 학교보다 새날학교가 훨씬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



면 새날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요.

이사장님은 우리학교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주 우리 학교에 놀러 오세요.

/ 채은 올림

"꿈을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날학교에 다니고 있는 허이첸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 새날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스텐디디스입니다. 그래서 꼭 대학을 가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인가가 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과 어찌면... 인가가 날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 사이에서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여러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가 인가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로는 다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어떤 말로 저희의 감사의 마음



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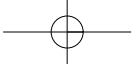
이제 저는 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정용화 이사장님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허이첸 드림

호남미래연대 새날학교

주/요/후/원/활/동

2010년	
3월	정용화 전 대통령비서관 새날학교 학력인정 활동시작
4월	새날학교 정용화 명예이사장 추대
5월	국제로터리 3710지구 통학차량 후원 연결
6월	광주시교육청 방문 새날학교 학력인정 요청
8월	새날학교 교직원 간담회 애로사항 수렴
9월	대만 환안로터리, 동광주·염주로터리 새날학교 방문
9월	장회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면담
10월	현대·기아차그룹 후원금 전달
11월	NH우통, 탐건설 기숙시설 아파트 2채 마련
12월	충장라이온스클럽 교육용 대형 TV 전달
2011년	
1월	가수 씨엔블루 새날학교 초청 팬사인회
1월	SK커뮤니케이션즈 후원금 전달
1월	광주은행 후원금 전달
1월	정용화 이사장 KBC광주방송 TV출연 새날학교 도움 호소
2월	(주)프로텍 후원금품 전달
2월	(주)고리 쌀 전달
2월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방문 면담
3월	광주시생활체육회 체육용품 전달
4월	동광주·염주로터리 교육용 컴퓨터 설치
5월	광주신세계백화점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6월	광주시교육청 방문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 지정 감사 인사



사진으로 보는... 새날학교 후원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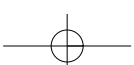
- 1 정용화 명예이사장 추대
- 2 새날학교 교직원 간담회
- 3 총장라이온스클럽 교육용TV전달
- 4 국제로터리 제 370지구 통학차량기증
- 5 가수 씨앤블루 팬사인회
- 6 아파트 기숙사 입주식
- 7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
- 8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방문 간담회
- 9 동광주·염주로터리 교육용 컴퓨터 설치 기증식
- 10 새날학교 학생들 기념촬영



“광주새날학교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정을 축하합니다”



- | | | |
|---|--|--|
| (주)금호주택
대표 : 김명균 | 총장라이온스클럽
회장 : 김혁 사회봉사분과위원장 : 김관도 | 국제로터리 3710지구
총재 : 박남수 차기총재 : 송심홍 |
| 학문외과
원장 : 주영화 | 한울 피부속
원장 : 김혜정 | (주)프로텍
대표 : 이용범 |
| 테라이엔씨
대표 : 이정남 | (주)e-조은산업
대표 : 전갑수 | (주)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 조창현 |
| (사)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광주시지역본부
본부장 : 이경윤 | SK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주형철 | 한국종합예술학교
대표 : 서동균 |



“석패율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호남미래연대 개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영·호남의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차기 총선부터 ‘석패율제’나 ‘교차할당비례대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는 전남대 아태지역연구소(소장 조정관),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오수열)와 함께 지난 3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호남미래연대 정용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없는 정치선진화는 물론 지역발전, 진정한 통일도 이룰 수 없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민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하성 경기대 교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비례대표제 개혁방안-교차할당비례대표제의 제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남대 조정관 교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 이사장, 지역미래연구원 김영집 상임이사, 광주매

일신문 이경수 정치부장,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김영삼 사무처장 등이 나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 정당들이 의석을 독점하는 반면, 상대 지역에서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편중현상이 뚜렷하고 이는 지역할거주의로 연결된다”며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나 석패율 제도도 중복입후보 등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전국구에 배분하는 ‘교차할당비례대표제’는 ‘지역교차’와 ‘할당당선’이라는 의미를 통해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의 의식전환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관 교수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각 정당들이 열세 지역에서도 경쟁력있는 후보를 모집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지 중복 입후보 문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석패율 대상 후보의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정당들이 기득권 정치인들을 석패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약속하면 된다”며 단점 보완을 밝혔다.

노미덕 이사장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집 상임이사는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부장은 “고질병이자

망국병이라고 지적되는 지역주의를 깨트릴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가 자주 거론된다”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당사자는 바로 정치인이다”고 지적했다.

김덕모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방안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거제

도 개혁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과 원희룡 사무총장,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민주당 김정길 전 의원, 채일병 전 의원, 박재순 전최고위원, 김문일 당협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호남미래연대 5·18행사 참여



‘주먹밥 나누기’로 소통·사회통합 실천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서 공감아카데미 회원과 함께

(사)호남미래연대는 공감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5·18민주화 운동 31주년을 기념해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통해 5월 정신을 실천했다.

호남미래연대와 공감아카데미 회원들은 5월 17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나눔과 대동세상을 위

한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현장에서 회원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함께하는 5·18’의미를 되새겼다.

호남미래연대는 5·18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소통과 사회통합 정

신으로 승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주먹밥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5월 어머니회 회원으로 이날 주먹밥 행사를 준비한 허귀례 호남미래연대 회원은 “주먹밥 나누기는 나눔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작은 주먹밥 하나 하나가 모여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알림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호남미래연대 총회 및 회원 가족 한마당
7월 9일 오전10시 중소기업청 호남연수원

공감아카데미 수료생도 참여

(사)호남미래연대는 7월 9일(토) 중소기업청 호남연수원(광주시 북구 장등동)에서 총회 및 회원가족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될 총회는 활동경과보고와 사업계획보고, 정관개정, 임원진 보선 순으로 진행됩니다. 총회 뒤에는 회원 및 가족이 함께 하는 장기자랑, 체육행사, 레크레이션 등 한마당 축제가 이어집니다.

호남미래연대 회원과 회원 가족, 공감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히딩크 드림필드 <시각장애인축구장> 광주건립 가시화

市, 덕흥동 영산강 둔치 부지 건의... 올 연말 안 준공 전망 정용화 이사장-히딩크 감독-시각장애인협회 작년 MOU체결

(사)호남미래연대가 추진중인 히딩크 드림필드 건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히딩크 드림필드는 정용화 이사장이 지난해 4월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 광주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광주건립 MOU'를 체결한 시각장애인축구장이다.

호남미래연대는 출범이후 정용화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드림필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광주시는 호남미래연대, 광주시각장애인협회 요청에 따라 광주 서구 덕흥동 영산강 둔치를 드림필드 후보지로 히딩크재단에 건의했다.

이곳은 생활체육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는 인근으로 면적은 500평 규모다.

광주시는 그동안 영산강 둔치를 비롯 풍암동, 불로동, 용산동 등 5~6곳을 대상으로 드림필드 건립 후보지를 물색했으며, 장애인체육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접근성, 활용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해 덕흥동 영산강 둔치를 1후보지로 확정했다.

히딩크 재단은 광주시로부터 건의받은 부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건립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히딩크 재단이 영산강 둔치를 최종 확정할 경우 둔치 소유주인 정부(익산국토관리청)로부터 점용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4월7일 정용화 이사장과 히딩크재단 박상진 이사 등이 덕흥동 영산강 둔치에서 드림필드 부지 설명을 듣고 있다.

히딩크 재단이 덕흥동 둔치 건립을 결정할 경우 관련 올 연말안에 드림필드가 광주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히딩크 재단은 지난 4월 7일 덕흥동 영산강 둔치 일대를 둘러보고, 세광학교(시각장애인인 학교시설)에서 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답사 및 간담회에는 정용화 이사장을 비롯 히딩크 재단 박상진 이사, 김정욱 세광학교장, 이경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황선권 광주시각장애

인협회장, 김원길 광주시장애인체육주무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함께 했다.

이날 광주시와 장애인체육회, 세광학교 측은 드림필드 주 이용자가 세광학교 학생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덕흥동 둔치에 건립될 경우 인근 생활체육시설과 연계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부지확보 용이성도 내세웠다.

히딩크 재단 박상진 이사는 "드림필드는 일반 축구장과 달리 보호펜스가

설치되는 시설"이라며 "건의한 후보지는 침수 우려가 있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용화 이사장은 "광주의 상황을 고려해 MOU 유효기간 1년이 넘어도 드림필드를 광주에 건립하기로 히딩크재단측과 약속했다"면서 "인권도시 광주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드림필드가 최적의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문외과 · 한독소아과



원장 주영화
(광주동명교회 장로)

◆ 진료과목 ◆
 • 치핵, 치루, 치열 전문 클리닉
 • 직장항문 기능검사
 • 직장 항문 초음파
 • 대장 전자내시경
 • 조기 대장암 검사 · 변비 클리닉

대장 · 항문 전문병원
학문외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6-12
 병 원 : (062) 225-3322-5
 팩 스 : (062) 222-4186
 핸드폰 : 011-609-0630



원장 정수경
(광주동명교회 권사)

◆ 진료과목 ◆
 • 소아과 · 소아비인후과
 • 소아알레르기 · 소아예방접종

한독소아과
 광주광역시 광안동 112 우에A상가 22호
 병 원 : (062) 681-8822
 핸드폰 : 011-643-8823

호남미래연대 창립 감사예배

광주 기독교계 지도급 인사 100여명 참석

(사)호남미래연대 창립 감사예배가 3월29일 CMB광주방송 1층 전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정용 광주교단협의회장(성산교회 담임)과 강상원 목사(새밝교회 담임), 류인구 장로(대성교회 · 광주성시화운동본부장), 김명일 장로(중앙교회) 등 광주지역 기독교계 지도급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희욱 목사(만백성교회 담임)와 변찬 목사(풍안전원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은 이날 참석자들은 호남미래연대가 창립이후 전개중인 사회통합, 지역발전 활동을 격려하며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정용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함께하려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호남미래연



대가 소통과 통합 정신을 더 앞장서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상원 목사는 "호남미래연대가 지난해 창립한 후 새날학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 등 지역민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경계를 허물려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백남선 목사(미문교회 담임), 주인식 장로(장로연합회 부회장)도 축사에서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를 기치로 내세운 호남미래연대 활동을 격려했다.



'선한 의료인들'이 지난 5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측에 기생충 약을 전달하는 모습. 앞줄 오른쪽이 필자

남북화해 · 통일 향해 가는 '선한 의료인들'

사단법인 '선한 의료인들'은 금강산 온정 인민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하던 광주 전남 의료인들이 2008년 1월 창립한 봉사단체다.

선한의료인들은 한 민족이면서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의료로 돕는 일을 하고자 출발했다.

특히 북한 보건 의료 활동은 개성 공단에 있는 개성협력병원에서 남북의사협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을 돕고 북한 의료인들에게 선진 한국 의료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남과 북이 합작으로 운영중인 개성공단이 존속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는 북한이 정치상황을 내세워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2011년 그간 준비해오던 개성공단 진료와 북측 근로자 기생충 박멸 사업을 다시 추진기로 했다.

때마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한국인 체류자 건강진단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요청하자, 회원 7명이 버스로 장비와 약을 가지고 1박2일

2008년 창립이후 매년 개성에서 '남북협진 의료봉사' 천안함·연평도 사태 딛고 북한행 계속 '참 의료' 실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진전이 되면 개성 시내에 보건소나 병원을 지정해 현대화 및 협동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우리는 창립 첫해인 2008년 개성남북 협력병원에서 19회의 진료 봉사를 한데 이어 2009년에도 13차례 진료를 실시했다.

또 한반도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북한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고, 새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5대암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아쉽게도 단 1회의 진료에 그쳤다. 공단의 출입 제한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영향을 받았다.

일정으로 지난 5월 24일 개성으로 향했다.

이번 진료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와 함께 북측 근로자들의 치아를 치료했다.

또 그간 준비한 북측 근로자 4만5천명에게 줄 기생충 약을 관리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남북화해와 통일의 토대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선한의료인들의 발걸음에 호남미래연대 회원들의 많은 기도와 지원을 기대한다.

/ 방충현 (선한의료인들 이사장 / 호남미래연대 고문)

후원신청 및 회비 정기납부 안내

회원 여러분의 회비 및 후원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호남미래연대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다문화가정돌기 저소득 자녀지원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 농협 : 355-2626-2727-03
- 광주은행 : 112-107-428964
- 신한은행 : 100-026-752380
- 하나은행 : 724-910007-69505
- 국민은행 : 777101-01-277571

회원동정

김창준(광주시생활체육회) 고문은 5월20일 2011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 고문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아 U대회 광주유치에 큰 공헌을 했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광주시민건강 증진에 앞장선 점을 높이 인정받아 체육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김하순 회원은 6월3일 수완저널 창간기념식을 갖고, 발행인 겸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수완저널은 광산구 수완·신창·신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월간신문이다.

박기종 회원과 **유승중** 회원은 4월23일 조이세상(함박웃음봉사단) 광주지부 발대식에서 광주지부장과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오경복 회원은 5월5일 광주 동명교회 시무권사에 취임했다.

한양승 회원은 5월23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광주 서구 치평동지회 회장에 취임했다.

조대현 회원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J플러워 회원을 개업했다.(010-2632-5529)

조경륜 회원(한빛사우회 회장)은 4월19일부터 2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한빛사우회 창립 34주년기념 회원전을 개최했다.

정용환 회원(대한석탄공사 이사)은 5월27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공공기관 이사 워크숍에 참석했다.

쫄비사랑

이명란

창조의 아침
꽃물 터지고 날라리 불고
굿마당 벌리고 북장구 징소리
온누리 울려 퍼지니
하늘도 화안하게 열렸습니다

두 송아리 장미꽃 사랑스럽게 피었습니다
목화송이처럼 고운 동진이와 영주
여기 하나 되기 위하여
곤지 꺾고 석류잠 꽃고
분꽃같이 환한 얼굴
초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알의 밀알 썩어
튼실한 뿌리내릴 제
달디단 열매들 주렁주렁 열리어
고뇌의 눈물까지
감싸안아주소서

동진이란 영주랑
사랑 위에 사랑 더 하소서

<시인, 화가, 꽃꽂이연구가, 문학(글쓰기/ 회고록/ 자서전)강사,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웃음치료)>

무등산 계곡_ 유태준(사진가교수)